

수능국어의 5가지 자질을 통해

수능국어의 특성을 이해하자

지금까지 수능시험의 특성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했는데, 수능국어는 꽤나 까다로운 상대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면, 수능을 잘 보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이것에 대한 정답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학습방법안내 문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휘/개념문제,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적용/창의 총 5가지가 있어요. 각각의 능력의 의미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휘 · 개념

어휘·개념은 정확하고 효과적인 어휘 사용 능력과 과목별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 개념의 이해 능력이 측정 요소가 된다. 어휘의 지시적·문맥적·비유적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속담이나 고사 성어 같은 관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표현하는 능력, 문장과 문단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화법, 작문, 독서, 문법, 문학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도 어휘·개념 영역에서 다루게 된다.

사실적 이해

사실적 이해란 언어로 표현된 말이나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 말이나 글에 담긴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말이나 글의 조직과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추론적 이해

추론적 이해란 말이나 글에서 직접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내포적(함축적, 문맥적)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 전제나 논거를 추론하는 능력, 전후 관계를 추론하는 능력, 필자의 견해·주장·의도를 추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비판적 이해

비판적 이해란 말이나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의 타당성·적절성·가치 및 우열에 대해 평가하며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적용·창의

적용·창의란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말이나 글의 개념과 원리를 새로운 맥락에 적용 또는 활용하는 능력, 말이나 글의 생산을 위해 내용을 생성·조직·표현·수정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다섯 가지 능력은 수능 국어의 본질을 알아내는 데 중요한 힌트입니다.

이 다섯 가지 능력을 바탕으로 수능/모의고사 기출문제와 선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관찰하다 보면 수능에 최적화된 사고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러한 시도를 해본 학생이 많지는 않을 테니, 지금부터 같이 5가지 사고방식의 속성을 탐구해 봅시다.

평가원의 5가지 행동영역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비판적/적용 및 창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수능으로는 이 두 가지 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 수능을 보는데, 60만 명의 창의력을 평가하려면 창의력테스트를 해야

하고, 비판/적용/창의력은 사람마다 다른 생각의 결과를 보여주죠. 60만 명이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사람마다 각자 다른 비판/창의/적용을 하니까 이를 평가하려면 60만 명의 시험지를 주관식으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교수님들이 직접 채점을 해야 합니다. 11월에 수능을 보고, 3월에 대학입학을 해야 하는데, 그 네 달 남짓한 시간 안에 60만 명의 주관식 시험지를 공정하게 채점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까요? 수능은 여러분이 직접 비판/적용/창의를 발휘하도록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출제자가 비판/적용/창의를 발휘한 결과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적절한지 여부정도만 판단하도록 문제를 구성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이해는 했을 지언정, 그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을 겁니다. 수능국어의 이러한 특성이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깊게 느껴져야 기출분석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고, 정답을 고르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지에 대한 시각이 넓어집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 한 문제 한문제를 뜯어보며 실제 그런지 확인을 해 봅시다.

아래 문항은 ‘적용/창의능력 중 말이나 글의 생산을 위해 내용을 생성, 조직, 표현 수정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9. ㉠과 ㉡을 중심으로 파악한 윗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성적인 의미를 가졌던 ㉠을 관습적인 의미를 가진 ㉡으로 바꾸어 보편성을 드러낸다.
- ② 과거에 불완전하게 이해했던 ㉠과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된 ㉡을 연결하여 주제를 심화한다.
- ③ 문제를 제기하는 말인 ㉠과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말인 ㉡을 대응시켜 논리성을 강화한다.
- ④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말인 ㉠과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말인 ㉡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부각한다.
- ⑤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말인 ㉠을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말인 ㉡으로 바꾸어 그리움의 정서를 부각한다.

만약 어떤 말이나 글을 보여준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걸 더 좋은 방향으로 내용을 생성, 조직, 표현 수정해보라고 한다면 학생마다 다른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말이나 글의 내용을 생성/조직/표현/수정하는 능력을 주관식으로 평가하면 좋겠지만, 60만명 수험생을 일일이 주관식 평가하기에는 어렵죠? 어쩔 수 없이 객관식으로 출제해야 되는데, 결국 위의 형태의 구조를 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생성/조직/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생성/조직/표현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만 판단하도록 말이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생성/조직/표현/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주어져있는 생성/조직/표현/수정을 보고 적절성을 평가한다는 관점으로 문제풀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관을 버리고 아주 객관적으로 사고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래 문항은 비판적 이해 능력 중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의 타당성/적절성/가치 및 우열에 대해 평가하며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19. <보기>에 나타난 순자의 입장에서 윗글의 장자 사상을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순자는 자연과 인간을 구별하면서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중점을 둔다. 그는 인간의 질서와 혼란이 자연 세계가 아니라 인간 세상의 문제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인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한다. 또한 인간은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자의 말처럼 자연 세계와 온전하게 합일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적 질서를 세울 수 없다고 본다.

- ① 마음의 공간을 비우는 수행은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② 자아를 잊고 만물과 소통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를 세울 수 없다.
- ③ 만물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 것은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는 바탕이 된다.
- ④ 만물에 대한 분별 작용이 사라지는 것은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⑤ 세계의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하는 것으로는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문제는 일반적으로, <보기>를 참고하여 비판하길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시각대로 비판을 하면 각각 시각이 달라져서, 60만 명의 수험생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만들어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탕으로 비판하지 말고 <보기>를 기준으로 비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주관적인 생각을 버리고, 순수하게 <보기>만의 시각으로 풀어야 합니다.

수능국어의 풀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로 풀린다.

바로 앞에서 4가지 오답 케이스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수능 국어는 결국 개념공부, 지문분석, 문제풀이 훈련이 꽤 높은 수준으로 다져져도, 사고방식 때문에 틀립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출제자가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적인 사고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많은 강사들이 본인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수능에 맞게 '교정'하라고 조언을 하지만, 사실 무의미한 발언일 때가 많습니다. 수능에 최적화된 특별한 사고방식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의 4가지 케이스를 봤으면 아실겁니다. 수능국어에서는 단지 지극히 당연하고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판단만 존재할 뿐입니다. 수능국어에 최적화된 특정 사고방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사고방식을 수능국어에 맞게 '교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정을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수능국어에 딱 맞게 사고를 교정하라는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도, 솔직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교정할 수 있는지는 설명하기 힘들 겁니다. 결국에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외선생님이 옆에서 하나하나 본인의 사고방식이 수능에 맞는 객관적인 사고인지 여부를 꼬박꼬박 알려 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가장 최선의 방법은 수능 기출문제를 최대한 열심히 풀어보는 것입니다. 이후에 자신이 문제를 틀리고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하셔야 합니다.

1. 상식이 부족한 건지
2. 배경지식이 부족한 건지
3. 나만의 주관에 빠진 건지

1,2번은 틀렸을 때마다 그때그때 해설과 지문을 공부하며 상식과 배경지식을 키울 수 밖에 없습니다.

3번은 여러분이 객관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건지 주기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각론-문학 공부법'파트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아실겁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도 따지면 이게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도 따지면 이것도 정답이 될 것 같은데..

공부를 열심히 해도 국어점수가 안 오르는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공부하면 오히려 잘못된 사고과정을 연습하는 꼴이 되어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비문학 오답은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

많은 학생들이 많은 양의 문제를 풀고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특히 국어영역은 이런 현상을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주로 오답을 확실히 공략하는 습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답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오답은 여러분의 약점이 드러나는 약점모음집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오답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이러한 오답을 공략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랑받아왔던 것이 오답노트입니다. 이 오답노트에 대한 의견은 2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오답노트는 시간낭비라는 의견입니다.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뭐하러 그런 작업을 하냐는 것이죠. 취지는 좋지만 막상 오답노트를 만들다보면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 붓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수학 문제 하나라도 더 풀라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오답노트를 이용하면 오답을 한눈에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고 오답노트는 오답관리에 있어서 충분히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이죠.

오답노트를 사용하건 다른 방식을 사용하건 간에 어쨌든 오답을 관리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것은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오답노트라는 학습방법이 호불호를 많이 탐에도 오랫동안 사랑

받아왔다는 것만 봐도 어쨌든 오답관리가 필수적인 것 사실이라는 의미이죠.

물론 오답노트가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임에도 성실히 오답노트를 만들 자신이 있으면 그대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답노트가 본인에게 잘 맞는 방식 같으면 애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오답노트가 워낙에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이다 보니 오답노트를 만들기 시작해도 나중에 흐지부지 하게 되는 등의 실패사례도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저도 오답노트를 꼭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함부로 단정 짓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답노트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귀찮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오답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답노트를 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오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행위 자체는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필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답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참고사항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비문학>

1.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는다.

모든 문제의 정답의 근거는 지문 속에 있다. 모든 선지들(①~⑤번)을 판단할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가며 오답을 정리해야 한다.

나무는 그리워하는 나무에게로 갈 수 없어
애절한 그 마음을 가지로 벌여
멀리서 사모하는 나무를 가리키는 기라
사랑하는 나무에게로 갈 수 없어
나무는 저리도 속절없이 꽃이 피고
별 나비 불러 그 맘 대신 전하는 기라
아아, 나무는 그리운 나무가 있어 바람이 불고
바람 불어 그 향기 실어 날려 보내는 기라

예를 들어, "나무" 라는 시를 가지고 만든 문제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의 체념" 이라는 선지 때문에 틀렸다면 해당지만 보고 고개 끄덕거리면서 슬쩍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의 체념" 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본문에는 어디 있는지 다시한번 본문을 읽어보면서 그런 단어를 표시해본다.

2. 틀린 문제나 헷갈렸던 문제에 원인과 해결방안을 기록한다.

틀린 문제는 내가 어떤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을까를 고민한다. 본인이 왜 이 문항을 틀렸는지를 분석해보고, 자신만의 풀이 방법을 한 두 개씩 만들어 본다. 맞았더라도 둘 중 헷갈려서 확신이 없이 푼 문제가 있어도 오답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시도를 한다.

예) 채권과 금리 사이의 관계를 잘못 독해 했다. 앞으로 어떤 소재 사이의 관계가 지문에 나오면 미리 주목을 해야 겠다. <보기>의 조건에 따라 회의론자의 입장에서 파악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지문의 어휘와 일대일 대응만 시키려 하기 보다는, <보기>의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하자!

솔직히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국어 오답관리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한 번이라도 찾아봤다면, 제가 제시한 방법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답관리 방법을 제시해 줘도, 여러분들은 '에이.. 그게 뭐야.. 당연한 이야기만 써있잖아? 이 정도는 나도 아는 방법이다..'라며 실망을 한 학생이 많겠죠.(물론 제가 제시한 이 당연한 방법도 잘 모르거나 실천하지 않는 학생도 수도룩 하겠지만요.)

어쨌든 누군가가 오답노트를 만드는 방법이라던가, 오답관리비결이라던가.. 에 대해 이야기를 해 봤자 대부분 내용이 그게 그거일 수 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오답을 관리한다고 성적이 무조건 확실하게 오를까요? 물론 오답정리로 효과를 크게 봐서 성적이 확 오르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답정리로 효과를 크게 보는 학생은 아주 소수입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앞에서 분명히 '오답관리는 틀린 문제나 헛갈렸던 문제에 원인과 해결방안을 기록한다.' 가 핵심이라고 했죠? 두 가지 예시도 들어드렸습니다. 까

먹었을까봐 다시 아래에 써 놓을게요.

‘채권과 금리 사이의 관계를 잘못 독해 했다. 앞으로 어떤 소재 사이의 관계가 지문에 나오면 미리 주목을 해야 겠다.’

‘<보기>의 조건에 따라 회의론자의 입장에서 파악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지문의 어휘와 일대일 대응만 시키려 하기 보다는, <보기>의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하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앞으로 어떤 소재 사이의 관계가 지문에 나오면 미리 주목을 해야 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해 봤자 다음에 소재 사이의 관계가 지문에 나온다고, 그 지문을 보는 안목이 높아지고 점수 상승이 될까요? 위의 예시에서 처럼 ‘<보기>의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하자!’ 라는 생각을 가져봤자, 진짜로 다음에 <보기>의 핵심이 머릿속에 잘 들어올까요? 결국에는 오답정리를 하면서 그러한 해결방안을 끄집어 내 봤자, 뜬구름 잡는 방안이 대다수입니다. 오답관리를 하는 것은 필수적인 공부이고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확실히 성적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보면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그래도 오답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 하긴 해야죠.) 실제로 오답관리의 본질을 보면, 결국 ‘뼈대’가 중요합니다. ‘뼈대’란

수능의 본질에 대한 이해+

충분한 어휘력+
지문을 충분히 이해할 배경지식+
흐름정도는 무난하게 파악할 만한 독해능력+
기출 수준의 개념어 이해+
실전 관점의 문제풀이방법 고민+
충분한 공부량+
기본적인 상식

이것을 의미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채권과 금리 사이의 관계를 잘못 독해 했다.’라고 여러분이 오답노트에 적었어요. 그런데 더 깊게 가면, 채권과 금리 사이의 관계를 잘못 독해한 것도, 흐름을 보는 눈이 부족하거나 배경지식이 부족해서 이해를 잘 못했으니 착각을 했겠죠. 예시에서 보여드린 ‘앞으로 어떤 소재 사이의 관계가 지문에 나오면 미리 주목을 해야 겠다.’ 같은 해결방안은 결국에는 피상적인 것이고, 오히려 ‘배경지식을 키워야 겠다.. 흐름 보는 눈이 부족하니 기출을 보며 꾸준히 흐름 보는 훈련을 해야 겠다..’ 등등이 조금 더 본질적인 해결방안입니다. 어쨌든, 뼈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런 식의 오답관리로는 성적을 올리는 데 한계가 분명하니, 보다 더 효과적인 오답관리 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국어 오답정리방식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글썄요. 결국엔 그들이 오답을 관리하는 대단한 꿀